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 '도약'

월명산 전망대 · 관광객 쉼터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 지역현안 문제 해결방안 모색 간담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행복위는 간담회를 갖고 지역2022년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 사업,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지원사업 추진 등 5건에 대해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문제점과 실질적인 대치방안, 향후 계획에 대해 상호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복위 위원들은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군산시간여행축제 기간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낮고 체류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인이 줄고 있다며, 야간 콘텐츠 강화 및 이색 체험 관광재 유치 등 목표로 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인 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도 주민참여형 축제로 원도심 관광객이 더 이

상 줄지 않도록 관광시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방만한 사업 추진을 지적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간여행마을권역, 서해나조, 동백대교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는 등 군산관광의 게이트 역할로 군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지원사업에 있어 농촌지역 이동약자들이 정보소외를 예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환경 개선 기반 및 안전에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구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업무추진 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2024년까지 건립... 기업·연구시설 집적화

익산시가 그린바이오와 동물산업 등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로 도약한다.

특히 최대 강점인 지역의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신산업 중심지로의 산업 생태계 재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는 합 열농공단지내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2018천㎡ 부지를 매입하고 오는 2024년까지 국비 포함 총



264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캠퍼스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회의실, 연구·실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연구, 투자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캠퍼스를 중심으로 농생명 분야 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화되면 북부권은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48억원의 부가가치와 247명

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심의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며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총 1천10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7년까지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곳은 신·변종 질병 예방백신과 고부가가치 동물용의약품 개발, 반려동물 제품·사료·첨가제 개발, 의약품 생산용 임상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 첫 단계 사업으로 모든 사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정성 평가센터'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 인근에 추진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10억원 확보

익산시가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가산에서 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는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를 구축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뉴딜사업 공모에 전주시와 함께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함께 참여한 이번 공모는 전주·익산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 사업으로 전주와 익산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지역의 특색있는 도서관을 여행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을 여행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익산의 생태특화도서관인 유천도서관과 전통 한옥형 금마도서관, 진주 꽃심도서관, 책가동도서관 등의 특화 도서관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여행뿐만 아니라 실감서재, 가상 독서축제 등 차별화된 도서관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메타버스에서 지역서점을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여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지역경

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변화에 도서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상의 공간에서 도서관을 경험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간 협력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상호 협력·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와 컨설팅,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청된 16개 사업 가운데 8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야외수영장, 2년만에 운영재개 오늘 개장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야외수영장을 2년만에 재개하고, 오는 15일부터 개장. 다음달 28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축소 운영했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았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기계설비 교체 외에도 수조 청소, 데크와 샤워장 시설 보수, 바다 탄성포장 외에도 지난월부터 물놀이 기구 안전성 검사를 받고 수질 개선을 위한 물 교체와 수질 검사를 실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야외수영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이용 전(09시~17시)에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통합예약시스템)를 통해 평일(700명)과 주말(870명)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현장 예매는 평일(300명)과 주말(370명)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방역관리를 위해 평일 2,000명 주말에는 2,500명으로 입장 제한해 운영한다. 1부(10시~14시) 입장객은 14시까지 2부(15시~19시) 입장객은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14시~15시에는 전체 소독을 실시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황철호 군산부시장, 구도심 하수도 정비사업장 현장점검

군산시는 황철호 부시장이 14일 금암동 월명동 신평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등 구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 정비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해 하수관로 30.4km, 배수설비 3,144가구를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공사중인 방재사업 현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금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우수를 분류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465억원을 투

입해 대상지역은 역전종합시장, 삼학시장, 양기시장, 금광동 행복주택, 가구거리, 짬뽕거리, 흥남동 일원의 가가호호 오·우수 분류화 및 각 가정의 개인 정화조를 정비한다.

사업기간 모두 협소한 도로와 여러 종류의 지하매설물, 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사중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다.

오우수 분류화 사업을 통해 각 가정마다 개인정화조가 폐쇄됨으로써 위생적인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방류수질 또한 크게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 부시장은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업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이 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 살균 강화

익산시는 여름철 악취와 해충 발생 예방에 나선다.

시는 악취와 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척 작업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원활한 세척작업을 위해 3개반 5명으로 세척팀이 별도 구성된다.

대상은 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601, 1201 전용수거용기로 세척 작업은 구역별 수거경로를 따라 실시되며, 세척 용액과 고온(200℃)의 스팀을 분사해 용기 외부의 음식물쓰레기 잔여물 등을 청소하고 용기 내부는 살균하는 방식이다.

시내권은 2개반(차량 2대), 읍면지역은 1개반(차량 1대)이 투입되며 오전에는 사업장·단독주택, 오후에는 공동주택 위주로 세척을 실시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심권 축산악취 근절 나서

익산시는 폭염에 따른 도심권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악취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지난 13일 축산악취 발생원 파악과 악취 해소를 위해 도심 인근 신흥동 왕지 평야 축산농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우협회 익산지부장을 포함해 농장주 8명과 미래농정국장, 축산과장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심권 축산악취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개선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악취저감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등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메뉴얼을 제작 배포해 농가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농가는 "근본적인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포한 메뉴얼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악취저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